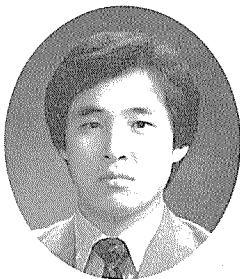


2000年代의
종합에너지
기업을 지향하는
京仁에너지



文 宗 民
(京仁에너지(株) 업무부 대리)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틀이 다져지던 1960년대 말, 당시 정부는 나날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에너지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韓國火藥 그룹의 창업자인 '故 玄巖 金 鍾喜' 회장은 당시 국가경제 개발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설립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과 현암 회장의 사업의지가 일치하여 설립된 회사가 바로 오늘날의 京仁에너지 株式會社이다.

창사이래 국가기관 산업체로서의 공익적 소임을 다하여온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지나, 京仁에너지는 지난 11월3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京仁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며,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2000년대를 향한 京仁의 새로운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I. 京仁에너지의 胎動

60년대 들어 국가적으로 경제 개발의 활력이 넘치는 가운데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각종 에너지源의 공급이 달리던 당시, 특히 국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정부에서는 민간 火力發電所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고, 정유산업과 관련산업인 火力發電에 참여키로 한 韓國火藥(株)은 美國의 Union Oil사와 50대50의 비율로서 6천1백만달러의 자본을 투자, 화력발전소와 정유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1968년 3월 23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회사가 京仁火力發電 株式會社였다. 그 해 4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발전 및 정유사업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의 인가를 얻었고, 9일에는 상공부로부터 65만 KW의 전기사업 경영허가를 받아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이듬해인 1969년 2월 발전소 및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참석하에 성대하게 치루어 짐으로써, 仁川직할시 서구 원창동 58만평 부지위에 힘찬 건설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같은해 9월에는 하루 5만 배럴 용량의 정유사업 허가를 상공부로부터 취득하게 되었고, 마침내 11월 3일 「京仁에너지 株式會社」로 회사의 설립동기를 완료하므로써, 京仁은 이 땅위에 세워진 3번째의 정유회사로서, 또한 전력을 생산해내는 국내 유일의 민간회사로서



▲70년대초의 인천공장 모습

우리나라 에너지史의 새로운 章을 열었다.

이와 같이 명실공히 에너지 산업으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은 京仁은 1970년대 들어 석유의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능력을 앞서가자, 그 해 9월 정유공장을 증설기로 하고 하루 6만 배럴의 정유사업 인가를 상공부로부터 획득하였다. 이어 1971년 3월에 정유공장의 시설 설치를 마치고 동년 4월 4일 Iranian Sassan 원유를 실은 유조선 'Sea Farer' 호가 216,000 배럴을 싣고 처음 仁川에 도착하여, 5월 정유공장의 완공과 더불어 드디어 석유류 제품의 생산이 시작되었다. 실로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정유회사의 집념을 키워온 金鍾喜 회장의 숙원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며, 국내 「精油3社」란 단어가 출현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한편 발전소 건설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1차적으로 162,400KW 용량 2기가 仁川 栗島에 건설되어 1972년 2월부터 商業發電을 개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게 되었다. 그러나 2차 325,000 KW 건설은 그간의 전력개발등 여러가지 여건 변동등으로 추진이 중지되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京仁은 화력발전사업과 아울러 정유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명실공히 국내산업 활동의 원동력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II. 京仁에너지의 內室期

국내의 석유류공급에 일익을 담당하게된 京仁에너지는 1973년 1월부터 국내시판에 들어갔다. 이를 위하

여 직영대리점인 제삼석유판매(주)를 설립함과 아울러 경인지역 6개소, 1개소등의 대리점을 확보하여 판매망 구축에 힘쓰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타사공장이 모두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것에 비하여, 京仁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생산시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이 지역의 산업활동에 혈액과도 같은 에너지源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경제개발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20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京仁에너지의 커다란 자부심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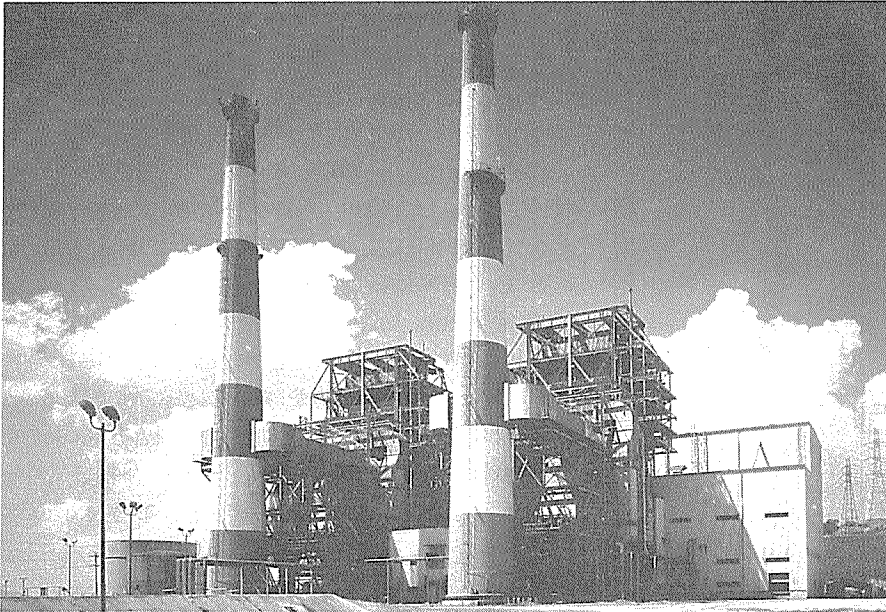
이처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제품수송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품질에서 앞서는 京仁에너지'의 구호에 걸맞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후발회사라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오렌지 빛깔의 회사로고와 함께 경인의 이미지를 빠르게 심어 나갔다.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한 京仁에너지는 제2차 석유위기가 발생하는 1979년까지 완만하나마 매출액의 신장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실적의 호조는 국내 유류 수요증가에 의한 것이었고, 사세의 확장을 수반하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아래에서 京仁에너지는 국내 수요증가에 대비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며, 1977년 1,700만배럴, 1978년 1,900만배럴 생산실적을 올렸다. 한편으로 내적관리체제를 강화하여 1974부터 1977년까지 560만 시간 무사고 기록 수립으로 미국 National Safety Council로부터 Award of Honor를 수상하였고, 1978년에는 최우수 열관리업체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1978년 공장가동률이 88%를 기록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생산시설의 확장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京仁에너지는 1979년 1월 10만배럴 증설인가 요청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증설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79년 후반 제2차 유류파동이 발생하여 국내산업이 불황국면에 처하자 유류업제도 위축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京仁에너지도 10만 배럴 증설계획을 중단한 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981년 7월 민간항공유인 제트 A-1을 생산하여 대한항공에 공급하는등 새로운 제품개발과 시장개척에 주력하며 내실을 도모해야만 하였



◀ 국내 유일의
경인민간화력발전소

Ⅲ. 成長기반의 구축

1980년대 접어들면서 제2의 創業을 선언한 그룹은 京仁에너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간 합작사인 Union Oil사가 1973년말 시설규모를 6만배럴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영 주도권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투자 회수만을 꾀할 뿐 투자의욕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은 합작사의 주식을 인수, 자본을 내국화함으로써 순수국내자본에 의한 신규투자의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이 작업은 1983년 3월 Union Oil사의 주식 일부를 매입, 소각하여 減資시킴으로써 자본 비율을 50대50으로 환원시키고, 다시 1983년 말 Union Oil 측의 지분 주식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완료하였다.

이로써 京仁에너지는 본격적인 단독 경영체제를 갖추고 '90년대를 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초 기존의 경영방식을 불식시키고 사세확장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전 조직을 개편하여 새로운 체제로 회사분위기를 一新했으며, 여건상 중단했던 10만 배럴 규모의 증설계획을 다시 검토하는등, 신규투자 의욕을 북돋우며, 또한 경영다각화를 위한 사업을 벌여 나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공장의 주요설비가 15년을 지나며 시설이 낙

후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공장개선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계획도 추진되어졌다. 우선 1985년 8월에 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곧 이어 정제시설의 상압증류시설과 휘발유 생산시설을 개조하는등, 생산수율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 사업도 실행되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휘발유제품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와 무연휘발유의 원활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9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나프타 개질 휘발유 제조시설 1만배럴 건설사업을 진행중이며, 80년대 들어 석유류제품의 수요구조의 경질화 추세에 따라 원활한 수급을 도모키 위해 중질유 탈황분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처럼 京仁에너지는 국내 석유류제품 수급의 안정을 기하여야만 하는 국가기관 산업체로서의 공익적 사명을 다하고자하는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기업으로서의 당연한 경영목표를 위하여 80년대 후반들어 의욕적인 신규사업으로의 진출과 경영쇄신을 기하고 있다.

Ⅳ. 2000年代를 향하여

京仁에너지가 추구하는 기본 방향은 종합에너지 기업이다. 京仁에너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한

장·단기의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가고 있다.

이미 '87년 기업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의욕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몇가지가 있는 바, 그 첫째가 석유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보다 저렴한 개발원유 도입을 통한 국가경제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의 해외 유전개발 사업이다.

지난 1985년부터 국내의 유전개발 사업 참여를 통하여 기술능력을 축적하였으며, 현재는 美國의 CONOCO 社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Warim 광구에 공동 참여하여 활발한 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89년 11월에는 새로이 南美의 에콰도르 오리엔테 지역 13광구 개발사업의 신규참여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京仁에너지는 상류부문 진출을 적극화하여 정유산업의 수직계열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다져가는데 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둘째, 경영다각화 방침을 위한 신규사업부문으로의 진출로 시작한 유회유 제조 판매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88년 8월 세계적인 종합 석유회사인 영국의 BP (British Petroleum) 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루 1,000배럴 생산규모의 유회유 공장이 11월중에 완공하게 되어,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동사업은 회사 수익성 측면의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京仁에너지가 추진하여나갈 석유화학사업의 교두보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오는 '91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1,020억원을 투자하는 10만배럴 규모의 원유정제시설 증설사업이다.

동사업은 국내 석유제품 수요증가에 따른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적 경제운용의 차원과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정유산업 자율화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규모의 확보로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회사 경영적 차원의 동시적 의의를 지닌 큰 사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京仁에너지는 증설사업 추진시 공정의 최첨단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京仁에너지는 이와 같은 각 부문별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2000년대를 향한 기업목표를 완수한다는 신념하에 전사적 업무개선 및 생산성 향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2000년대를 향한 가치 재창출운동 - PRO 2000'의 기치를 내걸고 전사원의 의식개혁 고취와 정유산업 특유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京仁에너지는 앞으로 한층 더 새로운 공정기술의 개발, 첨단 기술의 연구,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 대체에너지개발등, 풍요로운 내일을 열기 위한 기업경영의 좌표를 끊임없이 확인 달성하여 가며, 「2000년대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사와 함께 하는 京仁에너지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

